

‘가벼워진’ KIA 박찬호 “신바람 야구 하겠다”

‘임시 주장’ 반납에 날아갈 듯
활발히 움직여 타격 부진 만회
타이거즈 가을잔치는 당연
정규리그 2위 위해 뛰겠다



주장의 짐을 내려놓은 KIA 타이거즈 박찬호가 ‘신바람 후반기’를 예고했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고전했던 KIA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가 복귀하면서 전력 강화에 성공했다. 타선과 선발진에 무게감을 더하면서 시작하게 된 후반기, 박찬호는 누구보다 이들을 반긴 선수 중 한 명이다.

내야 사령관인 박찬호는 전반기 ‘임시 주장’ 역할까지 맡아 목적인 책임감으로 전반기를 보냈다.

‘잇몸’들의 활약으로 뜨거운 6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전반기를 보내면서 임시 주장 박찬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주장을 상징하는 ‘C’를 달고 뛰었던 박찬호는 나성범이 복귀하면서 원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오르고 있다.

후반기 첫 경기가 열린 20일 NC와의 경기 전 “몸이 가벼워서 날아다닐 것 같다.C가 없어지니까 유니폼이 가벼워져서 날아다닐 것 같다. 한번 보시죠”라면서 웃었던 박찬호는 이 경기에 멀티히트 포함 4홈루 활약 속 호수비 열전을 펼치면서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박찬호는 “난 주장감은 아닌 것 같다. 경험을 한 것으로 만족한다”면서도 “못하지는 않은 것 같다. 형들이 부상으로 빠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더 힘들었던 것 같다. 나름 많이 애썼다. 어린 선수들 케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것을 계속하라고 하면 머리 다 빠질 것 같다”고 웃었다.

박찬호는 후반기 시작을 누구보다 반긴 선수이기도 했다. 16일까지 올스타 브레이크를 보냈던 KIA는 폭우로 3일 연속 경기를 하지 못하면서 20일 후



나성범의 부상 복귀로 ‘임시 주장’ 역할을 내려놓은 KIA 박찬호가 가벼워진 마음으로 후반기 신바람 질주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KIA 타이거즈 제공〉

반기 첫 경기를 소화했다.

박찬호는 “너무 오래 쉬니까 불안했다. 빨리 야구하고 싶었다. 다시 야구하니까 신난다”고 이야기했다.

전반기 아쉬움이 많았던 만큼 후반기를 여는 마음도 달랐다.

박찬호는 “전반기를 평가하면 ‘못했다’. 전체적으로 내가 방향이를 친다는 느낌을 받은 기간이 짧았다. 매커니즘이 옛날과 나라는 느낌이었다. 매년 타격적인 부분을 조금씩 수정하는데 잘 맞물려 돌아오는 느낌이 안 났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느낌

이었다”며 “작년에는 타격 사이클로 업다운이 있기는 했지만 5월 이후로 계속 안정적이었다”고 전반기를 돌아봤다.

잡힐 듯 말 듯 타격이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부지런히 움직였던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줬다.

박찬호는 “작년 보다 성적은 낮지만 무안타, 무출루 경기는 줄었다. 잘 하는 날과 못 하는 날의 차이가 줄면서 꾸준하게 안타 치고, 출루는 하고 있다. 그 부분은 만족한다”고 이야기했다.

전반기 임시 주장으로 위기의 팀을 이끈 박찬호는 무엇보다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이범호 감

독의 신임을 얻었다. 시즌 초반 슬라이딩 도중 무릎 부상으로 잠시 쉬기는 했지만 박찬호는 22일 현재 올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타석(363)과 수비이닝(671.1이닝)을 소화하고 있다.

박찬호는 “올 시즌 감독님이 많이 믿어주신다는 것을 느낀다. 임시 주장 맡았을 때도 더 땀을 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었고,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반기 많은 패배가 쌓이면서 페넌트레이스 1위 목표는 멀어졌지만 ‘가을잔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박찬호는 ‘2위’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

오다.

박찬호는 “가을 잔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등으로 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다”며 “전반기에 타이틀한 경기가 많아서 중간 선수들이 힘을 많이 썼다. 필승조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서 그게 걱정이다. 누군가가 튀어나와 주면 좋겠다. 우리 라인업을 보면 평균 이상의 타자들이다. 나는 판을 깔아주는 선수이고 해결해 주는 선수는 따로 있다. 게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선수는 따로 있다. 나는 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아사니(오른쪽)가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K리그1 2025 23라운드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아사니 4경기 연속골... 팀은 무승부



김천상무와 1-1

광주FC 아사니가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지만 승리의 주역은 되지 못했다.

광주FC가 지난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K리그1 2025 23라운드 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아사니의 선제골에 이어 광주가 두 차례 김천상무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연달아 골이 취소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32분 아사니가 변준수의 패스를 받아 오른쪽 측면을 뚫은 뒤 상대 수비진을 따돌리고 원발 슈팅까지 연결했다. 상대 골키퍼 이주현이 공을 뚫어 안으면서 아사니가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4분 뒤에

는 골대를 갈랐다.

김천상무 김승섭의 슈팅을 김경민이 막아낸 뒤 전개된 광주의 공격, 중원에서 공을 몰고 올라간 최경록이 오른쪽에서 질주하던 아사니에게 공을 보냈다.

앞선 슈팅 상황과 비슷하게 상대 수비진 사이에서 아사니가 원발 슈팅을 시도했고, 이번에는 골키퍼를 지난 공이 골대 왼쪽을 뚫었다.

아사니의 시즌 8호골이자 4경기 연속 골.

전반 38분에도 아사니가 최경록의 패스를 원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득점이 올라가지 않았다.

후반 시작과 함께 광주가 다시 환호했다.

프리킥 상황에서 헤이스가 오른쪽에서 오른쪽발로 공을 올렸다. 문전에서 헤더를 하기 위해 뛰어오른 변준수가 떨어지던 공을 놓치지 않고 오른쪽 슈팅을 시도했다. 이내 골망이 흔들리면서 변준수가 환호

했다. 하지만 슈팅에 앞서 공이 변준수 팔에 맞는 장면이 확인됐고, 핸드볼 반칙과 함께 득점이 사라졌다.

그리고 후반 26분 광주가 동점을 허용했다.

오인표가 오른쪽에서 반대로 크로스를 올렸다. 이동경이 헤더를 시도했지만 광주 수비 맞고 공이 뒤로 흘렀다. 공을 잡은 김승섭이 다시 이동경에게 패스를 했다. 이어 이동경의 오른쪽 발 맞은 공이 그대로 광주 골대를 가르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두 팀은 추가골 사냥에 나섰지만 골대가 열리지 않으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지난 6월 22일 대전전 이후 한 달 만의 홈경기에서 3위 김천상무를 상대로 승점 1점을 더한 광주는 주말에도 홈팬들을 만났다.

광주는 26일 오후 7시 '1위' 전북현대와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동명대 창단 첫 우승 주역’ 윤영석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동명대 3학년 원포워드 윤영석을 영입하면서 U22 옵션을 더했다.

윤영석은 포항 U15(포항제철중)·포항 U18(포항제철고)를 거친 포항스틸러스 유스 출신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22 K리그 U18 챔피언십에서 7경기 4득점의 활약을 펼쳤다. 이 대회에서 팀 준우승을 이끈 윤영석은 대회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포항의 우선지명을 받은 윤영석은 2023년 한남대를 거쳐 2024년 동명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그해 2월 열린 제60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동명대의 창단 첫 우승 주역이 됐다.

173cm, 70kg 체격을 갖춘 윤영석은 빠른 스피드와 박스 침투 능력이 뛰어난 측면 선수이다.

2003년생 정강민, 박상준, 안재민, 성운수를 U22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남은 2004년생인 윤영석을 영입하면서 내년도도 정강민·전유상(이상 2004년생), 정대인(2005년생), 손건호(2006년생)를 통해 U22 옵션을 구성할 수 있다.

23일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구단과 공식 계약을 맺은 윤영석은 “전남드래곤즈에 입단하게 돼 영광이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고, 증명할 기회가 온다면 그라운드에서 모든 걸 쏟아부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 시즌 10승 7무 4패(승점 37)의 전적으로 4위에 자리한 전남은 오는 27일 오후 7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최연소 프리미어리거 김지수, 독일 2부로 임대

한국 선수로는 최연소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 오른 중앙수비수 김지수(20)가 새 시즌에는 독일 2부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뛴다.

독일 분데스리가2(2부)의 카이저슬라우테른은 23일 구단 홈페이지에 “프리미어리그 팀 브렌트퍼드에서 센터백 김지수를 임대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2004년생으로 키 192cm의 김지수는 한국 축구를 이끌 차세대 중앙수비수로 기대받는 유망주다.

18세이던 2022년 준프로 신분으로 성남FC에서 K리그1에 데뷔해 19경기(1도움)를 땀 그는 성남이 K리그2(2부)로 강등한 2023시즌에는 정식 프로 계약을 맺고 1경기에 출전한 뒤 브렌트퍼드와 계약하며 유럽 진출에 성공했다.

2023년 6월 브렌트퍼드에 입단한 김지수는 2군 팀에서 뛰다가 2024-2025시즌을 앞두고 1군 팀으로 승격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12월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의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33분 교체 투입돼 브렌트퍼드 입단 후 18개월 만에

EPL 데뷔전을 치렀다.

한국 선수가 EPL 경기를 땀 것은 김지수가 15번째이자 최연소였다.

하지만 이후 그리 많은 출전 기회는 얻지 못했다. 시즌 막판엔 다치면서 지난 시즌 김지수는 1군에서 EPL 3경기과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1경기, 리그컵 1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김지수를 영입한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시즌이 끝나고 같은 EPL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 지휘봉을 잡는 등 변화도 있었다.

김지수는 결국 더 많이 뛸 수 있는 팀을 찾다가 분데스리가 1부 승격에 도전하는 카이저슬라우테른을 선택했다.

카이저슬라우테른의 마르첼 클로스 단장은 “우리는 강력한 중앙수비수, 특히 원발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면서 “김지수는 어린 나이에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양발로 다 잘 쓰고 기술과 뛰어난 체격 조건까지 갖춰 이미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김지수가 우리 수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